



조선대 수시입학 설명회 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2011학년도 수시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김진기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96개 초등학교 청원경찰 배치한다

출입 통제 자동개폐문도

광주·전남 등 전국 초등학교 1000개교에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배치되고, 학교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도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있는 고위험 노출학교 1000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상황진단 설문조사와 경찰청의 전국 일제 방법진다.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초등학교(5855개)의 17%를 선별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26개, 전남 70개, 경기 194개, 서울 113개, 경북 80개, 경남 75개, 부산 64개 등이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설비(학교당 2750만원)와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운영비(학교별 1952만5000원)를 지원한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더해 470억여원이다.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정년제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채용·관리가 쉬운 민간경비원, 배움터 지킴이도 활용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드나들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증에는 등하교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주는 안심알라미 서비스와 도서대출 기능도 추가된다. /박진표기자 lucky@

■ 119대원 힘에는 황당 신고 소방서 ‘골머리’

“배아파 죽겠다” 병원 데려다주니 인근 술집으로

#1. 최근 광주시소방본부 119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배가 너무 아프다’는 40대 남성의 신고였다. 구급대원은 이 남성을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줬다. 그런데 이 남성은 “배가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인근 술집으로 들어갔다.

#2. 광주 소 소방서 구조대원 A(35)씨는 근무중 “매미를 잡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민원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구조대원이 매미까지 잡을 수는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이후에도 개구리, 두꺼비 등을 잡아 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 출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황당하고 악의적인 신고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사이 실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매미·쥐 잡아달라” 악의적 신고 출동 응급 환자 피해도

1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급이송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총 3만76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질 병으로 이송된 환자가 전체의 61%(1만87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부상 19.3%(5931명) ▲교통사고 11.2%(3433명) ▲기타 8.6%(2633명) 등의 순이다.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그러나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기타 환자’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306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6월에는 342명, 7월에는 372명, 8월 400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엔 애완견 이송 등 황당한 구급 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시소방본부에는 ‘애완견이 아픈 것 같은데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달라’, ‘집 화장실에 쥐가 들어온 것 같으니 잡아달라’는 등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심야시간대에는 술에 취해 119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 지역교육청 40년만의 변신

‘교육지원청’ 전국 178곳 가동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위주였던 기존의 지역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학교 대상의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바뀐 것이다.

지역교육청의 변신은 1972년 교육법 개정으로 광역 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 행정청(당시 명칭은 교육국

청)이 설치된 이후 거의 40년 만이다.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생상담기구인 ‘위(Wee)센터’를 설치해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상담, 치료를 하고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지원 인력을 따로 배치해 학부모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등의 업무도 한다. 아울러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교과협의회·학습동아리 지원 등 교사의 수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5분
해질 18시 59분

달돋이 23시 15분
달질 13시 59분

태풍 '곤파스'

흐리고 비가 온 뒤 밤부터 점차 개겠다.

| 지역 | 기온 | 강수량 | 바다 | 파고 | 지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광주 | 25/29°C | 25/29°C | 흐리고 비 | 4.0~6.0m | ☁ | 보통 | 경고 |
| 목포 | 25/29°C | 25/29°C | 흐리고 비 | 5.0~8.0m | ☁ | 보통 | 경고 |
| 여수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 완도 | 24/29°C | 24/29°C | 흐리고 비 | 4.0~6.0m | ☁ | 보통 | 높음 |
| 구례 | 23/28°C | 23/28°C | 흐리고 비 | 2.0~4.0m | ☁ | 보통 | 높음 |
| 해남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2.0~4.0m | ☁ | 보통 | 높음 |
| 장흥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2.0~3.0m | ☁ | 보통 | 높음 |
| 고흥 | 23/29°C | 23/29°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 순천 | 23/28°C | 23/28°C | 흐리고 비 | 4.0~6.0m | ☁ | 보통 | 높음 |
| 영광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 진도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4.0~6.0m | ☁ | 보통 | 높음 |
| 전주 | 24/28°C | 24/28°C | 흐리고 비 | 2.0~4.0m | ☁ | 보통 | 높음 |
| 남원 | 22/28°C | 22/28°C | 흐리고 비 | 2.0~3.0m | ☁ | 보통 | 높음 |
| 목포 | 23/28°C | 23/28°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 목포 | 23/28°C | 23/28°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 목포 | 23/28°C | 23/28°C | 흐리고 비 | 3.0~5.0m | ☁ | 보통 | 높음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3(금) | 4(토) | 5(일) | 6(월) | 7(화) | 8(수)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4/31 | 25/32 | 24/31 | 24/29 | 24/31 | 24/31 |

2500만 교직원 위한 행복버스터 카드

Touch 1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교직원이라면 이제 지급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폭염 건강피해 현실화

인명손실 10% 늘었다

지난 3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44도 상승하면서 폭염이 최대 10%의 인명손실을 가져오는 등 기후 변화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7회 와인쇼 다인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 (토) 19:00 ~ 21:00 / 11월 13일 (토) 19:00 ~ 21:00

10월 17일 (토) 19:00 ~ 21:00 / 11월 13일 (토) 19:00 ~ 21:00

제발

입주기만 해도 행복해요

미이녹실

미이녹실 임상결과

상당히 90%가 효과 확인

미이녹실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건조함을 완화하고, 피부 탄력을 높여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피부 건조 완화
2. 피부 장벽 강화
3. 피부 탄력 향상

미이녹실